이강옥 교수의 한국선 이야기 ❼ 선승의 출가 ③



▶한줄요약
선승의 출가 동력은 운명처럼 만난 타인의 경책이나 권유에서 결정적으로 생성되기도 했다.

운명처럼 만난 선승들 출가 인연

5. 물속으로 들어간 물고기

속세에서 사는 것이 시시하고 고통스럽기만 한 반면, 산속 절 생활을 떠올리기만 하면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이 속세에서 사는 것은 물속에서 살던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내동댕이쳐진 것과 같다. 물 밖 물고기가 시급히 물속으로 들어가야 하듯 그 사람도 일단 한시바삐 산속 절로 들어가야 한다. 그런 사람이 출가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몸부림이요, 수행승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물고기가 드넓은 물속에서 유영을 시작한 것과 같다.

태몽 없이 태어난 찬영(粲英, 1328~1390)은 어느 날 삼각산의 우뚝한 모습을 보고 감격하여 삼각산 중흥사로 출가했다. 근대 이전 선승의 출가담 중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인 셈이다. 근대 이후 많은 선승은 이와 비슷한 사연으로 출가했다. 혜월(慧月, 1861~1937)은 덕숭산 정혜사에 놀러 갔다가 삼촌뻘 되는 혜안(慧安)을 은사로 출가했다. 만공(滿空, 1871~1946)도 금산사에서 정월 초하루를 맞이하던 중 불법에 대한 환희심을 경험하고 출가의 뜻을 굳혔고 이듬해 야반도주하여 동학사 경허 스님 문하로 출가했다. 혜암(惠菴, 1885~1985)은 아버지를 여의고 흥국사에 갔다가 절의 분위기에 이끌려 그냥 머무르고 싶었다. 그 때는 허락을 받지 못해 집으로 돌아갔지만 산사가 그리워 12살 되던 해 결국 출가했다. 운봉(雲峰, 1889~1941)은 13살 때 아버지를 따라 팔공산 은해사에 갔다가 불상을 바라보고 무한한 기쁨과 동경심을 느껴 그날 바로 출가했다. 춘성(春成, 1891~1977)도 9살 때 어머니를 따라 설악산 신흥사에 갔다가 불상을 우러러 보고 출가의 뜻을 세웠다. 그때는 허락을 얻지 못했지만 4년 뒤 백담사로 출가했다. 향곡(香谷 1912~1978)은 수도 중인 중형을 만나보기 위해 내원사로 갔다가 출가했다.

수옥(守玉, 1902~1966)은 정숙하고 용모가 빼어나서 유년을 넘기자 청혼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그녀는 어릴 적부터 세속 삶이 비루하게만 생각되었다. '흰 구름 푸른 산속'에서 수행 생활하는 것을 언제나 그리워하였다. 결국 16살이 되자 몰래 집을 나와 덕숭산 견성암 법희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산속 돌부처의 점지로 태어난 대영(大英, 1903~1985)도 항상 산이 좋고 그립다고 되뇌었고, 19살이 되자 설악산 신흥사의 한 말사로 출가했다. 광호(光毫, 1915~1989)는 어린 시절부터 오신채가 든 음식은 입에 대지 않았고 동네 아이들이 메뚜기나 미꾸라지 등을 잡는 것을 보면 기겁하며 말렸다. 9살 때 어머니를 따라 운문사 청신암에 갔다가 행자승의 삭발 모습을 보고는 출가의 뜻을 세우고 몇 년 뒤 출가했다. 일우(1918~1989)는 어려서부터 세속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었고 오직 도만 찾다가 출가했다.

속세를 벗어나 산사로 가려는 마음은 위의 선승들과 같았지만 좀 더 오랫동안 모색과 준비 과정을 거친 경우도 있다. 석우(石友, 1875~1958)는 혼인을 하고 난 뒤에도 가출을 일삼았다. 비승비속의 경계인으로 생활한 것이다. 결국 〈보조어록〉의 한 구절을 보고 문득 금강산으로 출가했다. 한암(漢巖, 1876~1951)은 유년 시절부터 우주에 대한 근본 의심을 가졌다. 9살 때 '우주 자연이 처음 생기기 이전인 태고 적에 반고씨가 있었다.'는 〈사략〉 구절을 보고 '그렇다면 반고씨 이전에는 누가 있었을까?'라는 의심이 생겨났다. 그것은 '살아 있는 화두'가 되었다. 스스로 일으킨 화두가 자기를 금강산으로 출가하게 했다. 만해(卍海, 1879~1944)는 13살에 혼인했으나 출가를 위한 생각을 그친 적이 없었다. 아내가 출산하자 '미역국 끓일 미역을 사려고' 집을 나섰다가 백담사로 발길을 돌려 출가했다. 용성이발관을 운영하던 구산(九山, 1909~1983)은 29살이 되던 해 출가했다. 시절인연이 도래하였기 때문이라는 말은 그간 치열하게 출가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사유해왔음을 암시한다. 성철(性徹, 1912~1993)은 대나무 숲 속이나 밤나무 밑에 가서 명상에 잠기곤 했다. 〈증도가〉를 읽는 순간에는 캄캄한 밤중에 횃불을 만난 듯한 감격을 맛보았다. 대원사로 가서 '영원'의 문제를 풀기 위한 참선에 들었다가 42일 만에 '마음이 다른 데로 도망가지 않고 시끄러운 움직임과 고요한 멈춤이 하나가 된 경지'에 이르렀다. 출가하기도 전에 한 소식을 얻었으니 언젠가 출가할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다. 탄허(呑虛, 1913~1983)는 오대산 한암선사와 3년간 서신을 주고받다가 한암 가까이서 공부를 더 깊이 하려는 마음에서 한시적인 입산을 했다. 입산은 결국 출가가 되었다. 성수(性守, 1923~2012)는 또래 아이들과는 어울리지 않고 어른들만 가까이 했다. 유년 때 도인을 만난다며 몇 차례 가출을 시도했지만 가족 손에 이끌려 돌아오곤 했다. 아버지 사후에야 출가할 수 있었다. 혜정(慧淨, 1933~2011)은 잡지 〈불교〉를 통해 불교 이론의 기초를 닦았다. 특히 옛 선사들의 일화를 보면서 불교에 대한 더 많은 의문점과 기대감이 생겨 마곡사로 출가했다.



만공선사 진영.

운봉, 은해사 불상 보고 바로 출가
광호, 행자승 삭발 모습 보고 발심
월혜, 청담스님 인연 42세에 출가
수월, 주인에게 "놓아달라" 애원해

다른 한편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자랐기에 자연스럽게 출가자가 된 경우도 있다. 본공(本空, 1907~1965)이 출가의 뜻을 말하자 그녀의 신심 깊은 집안 어른들은 모두 자연스럽게 흔쾌히 받아들였다. 덕암(德庵, 1913~2003)과 법흥(法興, 1931~)의 경우도 그랬다. 특히 법흥(法興)의 아버지는 김용사와 대승사에서 상주하다시피 했고 어머니도 매일 빠짐없이 기도를 했다. 어릴 적부터 절에만 가면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싶었고 스님을 보면 반가웠다. 속명이 '주흥'이었는데 마을 어른들과 친구들이 "중아, 중아" 부르며 놀렸는데도 그게 전혀 싫지 않았다. 고려대 국문과 학생이었을 때도 학교 근처인 개운사와 청룡사로 가서 기도를 이어갔으니 졸업 뒤의 진로는 자연스럽게 '출가'가 되었다. 설정(1942~)은 어릴 때부터 집을 방문하신 스님들을 두루 뵙게 되었는데 "중노릇 하라"는 스님들의 말씀을 축원처럼 듣고 자랐다.

6. 운명적 만남과 출가

선승의 출가 동력은 운명처럼 만난 타인의 경책이나 권유에서 결정적으로 생성되기도 했다. 진리에 대한 스스로의 몸부림과 바깥의 지지가 대응하는 줄탁동시의 형국이다.

1936년 어느 날 경북 안동 포교당의 한 풍경이다. 30대 스님이 사자후를 토하고 중년부인이 그 한마디 한마디에 몸과 마음을 가누기 어려운 충격을 받고 있었다. 그녀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불교는 '엉터리'였다. 젊은 스님은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42살인 부인은 만주에서 판사 생활을 하고 있던 아들에게 엄마의 출가 결심을 일방적으로 통고하고는 속세의 삶을 바로 정리했다. 그녀가 사불산 윤필암으로 출가한 것은 법문을 들은 지 불과 3일도 지나지 않은 날이었다. 젊은 청담 스님이 밖에서 쪼아주는 지점을 향해 정확히 안에서 대응한 중년부인은 결국 통념적 '가정주부'의 알을 깨고 나왔다. 월혜(月慧, 1895~1956)의 출가담이다.

완벽한 빈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한 분이 수월(水月, 1855~1928)이다. 수월은 부모나 집안, 자기 이름에 대한 기억도 없었다. 그에 대해 스스로 말한 적도 없다. 어느 순간 자기가 남의 집 마구간 옆에서 자며 그저 발밑만 바라보고 남의 일을 해주는 머슴이란 사실이 자각되었다. 수월은 성품이 맑고 단순하여 말없이 일만 했다. 고기와 술을 싫어했고 살아 있는 것은 자기 몸처럼 여겨 비록 모기나 빈대 같은 해로운 벌레라도 괴롭히거나 죽이지 않았다. 들일을 하던 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친한 수월의 벗이었다. 수월은 잠이 없어 새벽 닭이 울기까지 방 안에서 일을 했고 달 밝은 밤이면 일손 모자라는 남의 들일을 몰래 해주기도 했다. 가끔 스님들이 수월의 방에서 자고 가곤 했는데 그때마다 수월은 스님의 이야기를 귀담아들었다. 어느 늦가을 밤, 어느 운수승이 밤새 해준 수행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수월은 출가를 결심하고 이튿날 주인에게 자기를 놓아달라고 애원했다. 주인은 가죽신을 내어주며 그 가죽신이 다 떨어졌을 때 떠나가게 해주겠노라 말했다. 수월은 가죽신을 신고 더 열심히 일했다. 두 해가 지났지만 가죽신은 그대로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방에서 다시 하룻밤을 묵어가게 된 운수승은 수월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고 벼포기를 걷어차보라 조언해주었다. 그로부터 수월은 밤마다 논으로 나가 미안하지만 제발 자기를 놓아달라며 벼포기를 걷어찼다. 수월을 옭아매고 있던 고역의 굴레처럼 질기디질겼던 가죽신은 서서히 허물어져 내렸다. 벼포기도 수월의 출가를 도와주는 듯했다. 새벽이 오자 수월은 크고 맑은 눈을 껌벅이는 소를 어루만져주며 작별을 고했다. 스물아홉의 늦가을, 그의 몸을 옭아매면서도 삶의 교실이 되어준 들판을 떠나 멀지 않은 천장암으로 갔다. 거기서 수월은 혜월, 만공과 함께 '경허의 세 달'이 되었다. 수월은 그들 중에서도 맏이였지만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나무하고 짚신 삼고 방아를 찧었다. 스승이 알려 주신대로 일을 하면서 '대비심다라니'를 외우는 것이 달라진 점이었다.

이렇듯 월혜와 수월은 우연한 만남을 통해 전의(轉依)라고도 할 정도의 변화를 겪고 출가를 이루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만났던 분들을 떠올려본다. 그중에는 청담이나 운수승처럼 내 관습적 일상의 단단한 껍질을 수없이 쪼아준 고마운 분들이 계셨을 것이다. 이날까지 나는 그 쪼는 소리와 진동과 충격을 흐리멍덩 놓쳐온 것은 아닌가.

〈연세대 객원교수〉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직인 등록 공고

총무원장 새 직인

본종 종헌 제37조에 의거, 2022년 3월 29일 제20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당선, 2022년 3월 30일 종정 예하로부터 임명 받은 제20대 총무원장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인 위·도용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총무원장 직인을 등록하오니, 총무원·원로의원·중앙종회의원·각 교구종무원장 스님들께서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확인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31일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관효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 염불전문 시설
디지털앰프 다루기 1초! 특징 : 고장없음, 전제품 국산 확인
수준급을 자랑하는 법당시설들과 현장 비교시 놀라운 차이속에 현재 귀 법당 시설비의 1/3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에도 완전 소리 업그레이드!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 완벽시설, 가격 198만원,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장기할부가능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방문시 8천만원 하는 마이크 있음을 스마트폰 확인해 드림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가격 ₩ 40만원 (출장 설치비 20만원 별도)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 40만원 (출장 설치비 20만원 별도)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로 화답!
가격 ₩ 60만원 (출장 설치비 포함)